

김동섭 “AFC 챔스는 하늘이 준 기회”



성남FC 김동섭은 2015시즌을 절실한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는 성남의 동계훈련이 진행 중인 전남 순천의 한 호텔에서 스포츠동아와 만나 “올 시즌 K리그를 넘어 아시아에서도 내 가치를 확실히 증명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윤현 | 남정원 기자

사커 피플

드리고 4년 포함 프로8년차 성남 공격수
2013시즌 14골에서 지난해 4골로 추락
100점 만점에 50점도 줄 수 없는 부진
FA컵 우승으로 얻은 챔스서 부활 다짐

프로 8년차의 김동섭(26·성남FC)은 장밋빛 미래를 그려가던 기대주였다. 일본 J리그 시미즈 S펄스와 J2리그 도쿠시마 보르티스를 거친 그는 4년간의 일본생활을 청산하고 드래프트를 신청해 2011년 광주 FC를 시작으로 K리그를 누비기 시작했다.

활약은 아주 훌륭했다. 첫 해 7골·2도움으로 ‘광주 돌풍’을 이끈 데 이어 이듬해에도 7골을 터뜨렸다. 광주의 첼린지(2부리그) 강등으로 2013년 이적한 성남일화(성남FC 전신)에서 만개하는 듯했다. 14골·3도움으로 펄펄 날았다.

그러나 성남이 기업구단에서 도시민구단으로 전환된 지난해는 암흑이었다. 34경기에서 4골을 뽑는 데 그쳤다. 10월에야 첫 골을 기록했다. 그의 부진과 성남의 추락은 궤를 함께 했다. 비록 FA컵을 제패했지만, 정규리그에선 힘겨운 강등 싸움을 거듭했다. 성남 구단이 국내 동계훈련 캠프를 차린 전남 순천에서 만난 그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시즌”이었다고 말했다. “시즌 말에야 여유가 생겼지만, 마음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슬럼프는 지난해가 처음은 아니었다. 2009년 이집트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

FA) U-20(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하는 등 각급 청소년대표를 거쳐 2012런던올림픽 대표팀 발탁을 꿈꿨지만 좌절됐다. 다행히 잘 이겨냈다. 국가대표팀에 선발될 정도로 시련을 잘 극복했다. 그래서일까. 지난해의 부진은 유독 크게 다가온다. “솔직히 100점 만점에 50점도 줄 수 없다. 작년 두 자릿수 득점을 목표로 잡았는데, 창피한 성적표를 받았다.”

그렇다고 전부 잃지는 않았다. 참담함 속에 얻은 것도 있었다. 시련을 감내하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김동섭은 “재능에 비해 발전속도가 늦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 특히 작년은 입이 열게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많은 경험을 하는 선수도 없다. 지금이어서 다행이다. 충분히 위안을 찾았다”고 말했다.

김동섭은 자신의 상황을 ‘절실함’으로 정리했다. 지금껏 이렇게 축구가 고프고 간절한 적은 없었다. “이제는 나도 절실하다.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 축구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버티겠다. 그게 내게 주어진 운명이나니까.”

다가올 2015시즌은 성남에나, 본인에게나 아주 중요한 시기다. FA컵 우승으로 얻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도전이다. 시민구단이 아시아 클럽 무대에 출전하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다. 김동섭은 “하늘이 내려준 기회다. K리그를 넘어 아시아에서도 내 가치를 확실히 증명하고 싶다”며 주먹을 불끈 쥐어보였다.

윤현 | 남정원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김동섭(왼쪽)과 문경준이 2015시즌 우승을 다짐하며 의기투합해 베트남에서 함께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늦깎이 골퍼 문경준·김동섭 2015 생애 첫 우승을 꿈꾸다

2014년 톱10 진입 터닝포인트…베트남 전훈 구슬땀

“2015년은 우리의 해!”

문경준(33·휴젼)과 김동섭(32·ZOTAC)이 베트남에서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2015년 우승을 향해 함께 뛰자”고 결의했다.

문경준과 김동섭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고교 시절까지 다른 운동을 하다가 대학 때 골프로 전향한 ‘늦깎이’ 프로 골퍼다. 문경준은 테니스선수를 하다가 프로골퍼가 됐고, 김동섭은 축구선수 출신이다.

늦게 시작했지만, 재능을 보이며 비교적 빨리 프로골퍼가 됐다. 문경준은 2007년, 김동섭은 2008년 프로에 데뷔했다. 그러나 프로의 벽은 높았다. 우승은커녕 시드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프로 데뷔 7~8년 동안 중하위권에서만 뒹뒹던 문경준과 김동섭에게 2014년은 전환점이 됐다. 특히 김동섭은 지난 시즌을 통해 골프에 새롭게 눈을 떴다. 김동섭은 2014년을 대기자 신분으로 시작했다. 2013년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상금랭킹 84위에 그치는 바람에 시드를 잃었다. 2014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솔직히 ‘시드만 유지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8월 열린 매일유업오픈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이 대회에서 우승경쟁을 펼친 끝에 4위에 올랐다. 프로 데뷔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김동섭은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이전까지는 컷 통과를 목표로 한 경기가 많았는데, 자심감이 붙기 시작하니 골프가 달라졌다. 어느 순간 우승이라는 목표가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섭은 펄펄 날았다. 시즌 최강전 신한동해오픈에선 공동 2위를 차지하며 생애 가장 많은 8000만원의 상금까지 받았다.

문경준에게는 2014년이 아쉽다. 2번의 우승 기회를 맞았지만, 경험 부족으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7월 열린 아마하 KLPGA 선수권 준우승에 이어 신한동해오픈에선 김동섭과 함께 공동 2위에 만족해야 했다. 그는 “솔직히 우승하고 싶은 욕심이 컸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탓인지 부담이 됐다. 2번의 실패가 큰 경험이었다”고 2014년을 돌아봤다.

둘은 1월 초 베트남으로 함께 전지훈련을 떠났다. 홍창규(34), 최아식(35)이 동행했고, 장하나(23)도 같은 골프장에서 동계훈련을 하고 있다. 평소에도 함께 훈련하며 우승의 꿈을 키워온 문경준과 김동섭은 2015년 생애 첫 우승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굳은 땀방울을 쏟고 있다.

문경준은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둘이 함께 연습하다보니 경쟁도 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 좋다. 무엇보다 ‘생애 첫 우승’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어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된다”고 밝혔다. 김동섭도 “지난 시즌을 통해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됐다. (문)경준이 형과 함께 훈련하면서 퍼팅 등 부족한 점을 많이 배우고 있다. 또 함께 훈련하고 있는 홍창규, 최아식 등 다른 선배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2015년이 기대된다”며 희망에 부른 모습을 드러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타이거 우즈, 여친 시상식 보러갔다가 앞니 부러져

골프 스타 타이거 우즈(40)가 여자친구인 알파인스키선수 린지 본(31·이상 미국)의 경기를 보러 갔다가 앞니가 부러지는 불운을 당했다. 우즈는 20일(한국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 경기장에 등장했다. 본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서 전용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것. 그러나 본이 이날 슈퍼대회전에서 우승해 시상식을 보기 위해 서 있다가 무대를 향해 급하게 달려오던 카메라기자와 부딪혔다. 그 순간 카메라가 우즈의 입을 치면서 앞니가 부러지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kt 사격단, 국가대표 출신 이종준·김설아 영입

kt 사격단은 20일 국가대표 출신 이종준(19)과 김설아(26)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종준은 고교 3학년 때 사격을 시작해 입문이 늦지만 스키트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낸 특이한 이력의 선수다. 김포시청에 입단한 뒤 국군체육부대를 거쳐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스키트 종목에 출전해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편집 |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 트위터@sadzoo

역사 윤진희 현역 복귀 “엄마의 이름으로”

(力士)

베이징올림픽 銀…한국기록 5개 보유
은퇴 3년만에 다시 선수로 훈련 시작해
팔 통화로 피로 훌훌 “내년엔 국제무대”

2008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윤진희(29)가 ‘엄마 역사(力士)’로 현역에 복귀한다. 역도 관계자는 20일 “윤진희가 최근 경북개발공사에 입단해 훈련을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2011년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한지 만 3년 만이다.

●남녀역도 통틀어 유일하게 5개의 한국기록 보유

윤진희는 한체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년 베이징올림픽 역도 여자 53kg급에서 함께 213kg(인상 94kg·용상 119kg)으로 세계 2위에 올랐다.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장미란(32·장미란재단이사장), 사재혁(30)과 함께 한국역도의 전성시대를 연 주역이었다. 이후 2009고양세계선수권에서도 인상 은메달, 용상 동메달을 획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팔꿈치와 어깨, 무릎 등의 잦은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2011파리세계선수권을 끝으로 현역에서 물러났다. 선수생활을 충분히 더 이어갈 수 있는 나이였기에, 역도계에 아쉬움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현재까지도 여자 53kg급 인상(99kg)·용상(123kg)·합계(222kg) 한국기록은 윤진희의 몫이다. 윤진희는 여자 58kg급 인상(97kg)·용상(122kg)에서도 한국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남녀역도를 통틀어 5개 부문에서 한국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는 그녀가 유일하다.

●두 딸의 엄마, 남편의 지지 속에 다시 바벨 잡아

은퇴 이후 4세 연하의 역도선수 원정식(25·고양시청)과 백년가약을 한 윤진희는 이후 남편의 운동을 뒷바라지 하며 주부의 삶을 살았다. 2012년 7월에는 첫째 딸 라임(3)을 얻으며 ‘엄마’가 됐고, 2014년 6월에는 둘째 딸 라울(1)을 낳는 등 육아와 가사에 전념했다. 2013년 잠시 현역 복귀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금세 뜻을 접었다. 윤진희는 “아이들 키우느라 너무 바쁘게 살아서 역도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다”며 웃었다.

현역 복귀에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오히려 남편이었다. 원정식은 가정을 꾸린 이후 전성기를 맞았다. 평양에서 열린 2013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대항역도선수권 남자 69kg급에서 5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며 이름을 알렸고, 2014인천아시안게임 대표로도 선발됐다. 그는 자신의 성공가도를 위해 희생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결국 “당신의 아까운 재능을 살려보자”며 윤진희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시부모 역시 며느리의 적극적 후원자가 됐다. 결국 윤진희는 지난해 출산 이후 서서히 몸을 만들었고,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바벨을 잡았다. 남편과는 서로 기술적·심리적 조인을 아끼지 않는 동지적 관계가 됐다.

●국내대회 결과 좋다면 내년 국제무대에도 도전!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2번의 출산, 3년의 공백, 서른의 나이 등이 모두 부담이기 때문이다. 근력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현역 시절 54kg이었던 체중도 47kg까지 빠졌다. 근육량을 다시 늘리는 것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역도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윤진희가 3년 만에 현역으로 복귀한다. 그 사이 윤진희는 두 딸의 엄마가 됐다. 사진은 그녀가 베이징올림픽 직후 스포츠동아와의 인터뷰 당시 활짝 웃는 모습.

스포츠동아DB

역시 과제다. 올해는 일단 자신을 시험해보는 시기로 정했다. 윤진희는 “하루에 한번 팔과 통화를 할 때마다 운동의 피로감이 날아가는 것 같다. 벌써부터 목표를 거창하게 잡진 않으려고 한다. 1년간 열심히 훈련한 뒤 10월 전

국제전에서 내 능력을 한번 평가해보고 싶다. 만약 결과가 좋다면, 내년엔 국제무대에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

평창조직위 ‘분산 개최 불가’ 재확인

아이스하키 서울 분산 개최도 고려 안해
인프라 확충·환경올림픽 프로그램 밝혀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분산 개최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성공적 개최를 위한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평창 조직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1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올 해 추진할 업무 계획을 공개했다. 첫 번째로 절대공기(工期)·경제성을 고려한 경기장 및 대회 관련 시설 건설 추진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 환경올림픽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을 내세웠다. 당장 2016년부터 테스트 이벤트를 개최해야 하는 만큼 경기장 건설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세계적 흐름에 맞게 환경올림픽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막대한 적자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두옥 창출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한 전방위적 마케팅 확대 계획도 밝혔다. 조직위는 올해 상반기에 항공, 자동차, 반도체, 건설 등 주요 분야의 스폰서십을 확보할 방침이다. 내년 예정된 테스트 이벤트 등에 대비해 올 2월까지 종목별 월드컵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올 8월까지 대회 운영, 홍보, 마케팅 등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성화봉송 등 다양한 문화행사 준비에 들어가 5월 안에 총감독을 선임하고 6월까지 부문별 감독단 선정을 마

치기로 했다.

한편 조직위 광역진 기획행정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 앞서 “더 이상 분산개최에 대한 논란이 없으면 하는 바람이다. 테스트 이벤트까지 생각하면 시간이 없다. 올해부터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다시 불거진 아이스하키의 서울 분산개최에 대한 질문에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분산개최 논의는 현실성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